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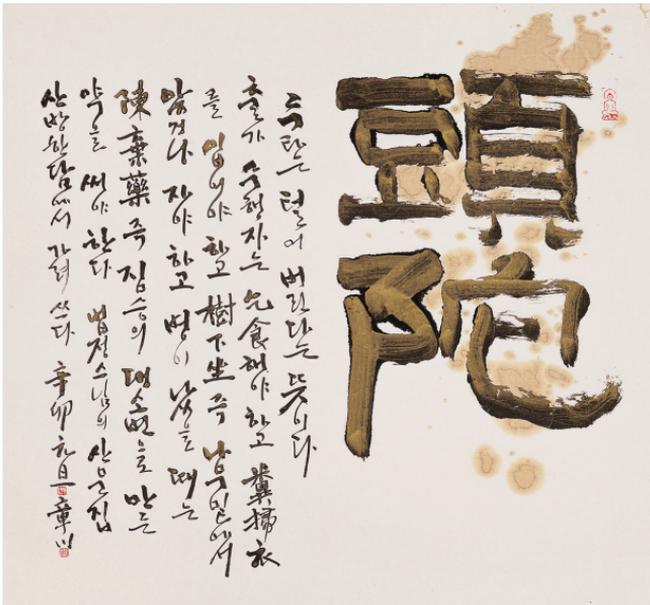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5

8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5 / 8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태풍 속에서
처음 마음으로	09	최고의 문자 <신심명>에서 배우는 지혜
숨어서 피는 꽃	15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특별기고 -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18	관음상으로 해서 생긴 법정 스님 이야기 ②
법정스님 책 속의 책	22	희랍인 조르바
따뜻한 이야기	24	내가 살아보니까
아름다운 마무리	26	8월 결연대상자-이편암 여르신
옛날의 금잔디	28	따뜻한 손
참교육 이야기	32	부母的 교육, 사랑인가 폭력인가?
나를 다시 세워주는 인연들	36	미워해도 휘돌리고 집착해도 휘돌립니다
향기나는 우체통	40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실천하며 삼시다	42	음식을 쓰레기 줄이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두타(69x69) • 장천 감성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8월 1일 발행 / 통권 246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태풍 속에서

글·법 정(法 頂)

해마다 한두 차례씩 겪는 일이지만, 며칠 전 태풍 '베라'가 지나갈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와 매몰이며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태풍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산에 살면서 번번이 겪은 내 경험에 따르면, 큰 비바람이 휘몰아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리 보이는 조짐이 있다. 이번에도 태풍이 오기 2, 3일 전에, 하늘이 마치 비로 쓸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름이 연하게 깔리었고, 개미떼들의 큰 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태풍이 있는 날 아침 정량(塋量)에 가니 전에 없이 박쥐가 낮게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되면 기상대의 예

보를 들을 것도 없이 어김없이 태풍이 온다.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센 비바람이 산을 휩쓸었다. 용마루의 기왓장이 떨어져 내리고, 들에 무성하던 파초가 갈기갈기 찢기고 꺾이었다. 여기서 우지끈 저쪽에서 우지끈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째 뽑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뜰 앞에서 있는 장명등(長明燈) 꼭지가 어느새 떨어져 나가고, 나무 비늘에 근으로 매어 뒹어둔 비닐 우장이 펄럭이다가 뒤결 나뭇가지에 걸려 요란한 소리를 낸다.

뒷마루에 놓아둔 신문지 상자가 날려 여기저기 어지럽게 물 먹은 종이가 널리었다. 대숲은 머리를 풀어

산발한 채 온몸을 떨면서 거센 비바람에 소용돌이치며 휩쓸렸다. 떨어진 나뭇잎에 수채가 막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뛰어나갔다가 우산도 날려버리고 흠뻑 젖은 채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속수무책(束手無策). 거센 자연의 위력 앞에서 사람은 너무도 무력하다. 자연이 크게 진노하여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내 안에서도 거센 바람이 일렁이려고 했다. 공연히 화가 치미는 것이다. 옛날에 본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나온 영화인데, 말짱하던 사람이 아라비아 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거칠어져서 자기 아내에게 곤잘 손찌검을 하였다. 바람이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모양이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이런 날은 정말이지 산 위에 사는 일이 아주 싫다. 안절부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공연히 짜증이 나고 울화가 치밀려고 한다. 혼자서 투덜투덜 욱지거

리를 쏟아놓아도 개운치가 않다.

이런 때는 생각을 크게 돌이켜야 한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안팎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시작이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게 마련, 태풍도 그만큼 불다가 잦아질 때가 있으리라.

그렇다. 이런 날이야말로 순수한 '내 날'이 될 수 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불쑥불쑥 찾아드는 불청객들도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으리라. 젖은 걸옷을 벗어버리고 속옷 바람으로 훌가분하게 있자.

전기도 나가버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 자, 뭘하지? 그렇다. 소설이나 읽자. 이런 날은 소설이나 읽어야지 엄숙한 일은 격에도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다락에 올라가 더듬더듬 손에 잡히는 책을 뽑아드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희랍인 조르바〉였다.

마침 잘 되었다. 굵직굵직한 카잔차키스의 선(線)을 나는 좋아한다.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오늘 기연이

다 싶어 다시 펼치기로 했다. 창가에 등의자를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읽자. 소설을 누가 뻗뻗이 앉아서 읽는 단 말인가.

책장을 펼치자 거기에서도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가 있을 때, 북아프리카에서 남유럽 쪽으로 부는 세찬 비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말을 카페 안에 가득히 날리고 있었다.

그 항구에서 산투리(기타 비슷한 악기)를 끼고 있는 조르바를 만나 이야기 끝에 '나는 이렇게 술취한다.

“그렇다.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 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 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땀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이 노동자가 지껄인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

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나는 곡괭이와 산투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의 손을 보았다. 두 손은 못이 박히고 터지고 일그러진 데다 힘줄이 솟아 있었다.”

조르바가 쓰는 단순하고 소탈한 말에 견줄 때, 복잡하고 시끄럽고 닳아진 현대문명 속에서 사는 오늘 우리들의 미끈한 말이 얼마나 허황하게 울리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연장과 악기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손아랫으로 진정한 인간의 손이 아닐까 싶다.

“따사로운 가을날 낮익은 섬의 이름을 외며 바다를 헤쳐 나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쉬 천국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이어서 나는 좋아한다. 그곳만큼 쉽게 사람의 마음을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는 곳은 없으리라.”

죽기 전에 이런 에게 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중순 한 달 가까운 수련회를 끝내고 우리 임원들끼리 쌓인

피로를 씻기 위해 여수에 있는 친지네 집을 찾아갔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배를 하나 빌려 두 시간 가까이 이 섬 저 섬을 끼고 돌면서 오랜만에 바다를 가까이했었다. 맑은 바다의 수평을 대하니 기복과 굴곡이 있는 산에서 다져진 마음이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열리었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 얼굴이 있다. 산에 갇히면 든든하긴 하지만 막히기 쉽고, 바다에서 놀면 툭 트인 맛은 있지만 무료하거나 자칫 허황해지기 쉽다. 산과 바다가 알맞게 어울릴 때 의지와 감성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다시 소설의 이야기.

“배 위에는 탐욕스럽게 굴리는 교활한 악마의 눈망울, 행상이 파는 허섭스레기 물건 같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가득 타고 있었다. 이들이 다 투는 소리는 흡사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정직하지만 심술궂은 여자들의 바카지 같았다. 성질대로 한다면, 두 손으로 배의 이물과 고물을 붙잡

고 바닷물에 폭 담가 술렁술렁 흔들어 복작거리는 산 것들 - 인간, 쥐, 벌레들을 깡그리 씻어내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건져 올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따금씩 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곤 했다.”

기발하고 신선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퍼뜩 태풍이 휘몰아치는 의미 같은 것이 떠올랐다. 인간들이 저지른 오만을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숨겨둔 위력을 발휘하여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분수와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미쳤다. 자연을 형편없이 허물고 짓밟고 더럽힌 인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것처럼 거센 비바람을 풀어 씻어내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마치 덜 된 인간들이 타고 가는 복작거리는 배의 이물과 고물을 거인의 손으로 붙들어 바닷속에 폭 집어넣었다가 떨어버릴 것을 떨어내고 다시 깨끗한 지구를 만들려고 하듯이 말이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도저히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등산용 버너를 켜서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점심도 건너뛰었다. 밥 한 끼 거른다고 사람이 죽겠는가. 밥 대신 '조르바'를 홀린 듯이 '먹으면서' 배고픈 줄을 몰랐다.

조르바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 좀 들읍시다. 요 몇 해 동안 당신은 청춘을 불사르며 마법의 주문이 잔뜩 쓰인 책을 읽었을 겁니

다. 모르긴 하지만 종이가 한 50톤쯤 씹어 삼켰을 테지요. 그래서 얻어낸 게 도대체 무엇이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준엄한 물음이다.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종이를 씹어 삼키면서 얻어낸 게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본질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이벌레에 그치고 만다.

1986

###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여름!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임의 취지에 공감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도움이 될 만한 공동체 사업(프로그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냐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확산을 위한 회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울러 회원님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시거나,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겸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자우편 : clean94@hanmail.net
- 전화 : 02.741-4696~7

## 최고의 문자 <신심명>에서 배우는 지혜

글·덕 운(德 耘)

至道無難(지도무난)이요  
唯嫌揀擇(유혐간택)이니  
但莫憎愛(단막증애)하면  
洞然明白(통연명백)하리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함만 없으면  
특 트여 명백하리라.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신심명(信心銘)>에 나오는 말입니다.

<信心銘>은 중국 6대 조사 가운데 한 분이신 삼조 승찬 대사께서 지으신 시구(詩句)인데 이는 우리가 처음 발심할 때부터 마지막 구경성불 할 때까지 가져야 하는 신심(信心)에 대

해서 남겨 놓으신 글입니다.

이 <信心銘>은 글 자체가 뛰어난 명문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심이란 도의 근본이면서 진여법계에 사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은 모든 도 닦는 분들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승찬 대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분은 본래 대풍질(大風疾)이라는 큰 병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날의 문둥병입니다. 스님은 문둥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다 이조(二祖)인 혜가 대사를 찾아가 자기의 성명도 밝히지 않고 불쑥 물었습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십시오.”

“그대는 그 죄(罪)를 가져오너라. 참 회시켜 주리라.”

“죄(罪)를 찾아보아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 되었느니라. 그대는 그저 불(佛), 법(法), 승(僧) 삼보에 귀의하도록 하라.”

“지금 화상을 뵈고 승보(僧寶)는 알았으나 나머지 불보와 법보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에 혜가 대사께서는 승찬 스님의 말을 듣고 그가 법기인줄 아시고 바로 머리를 깎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신심명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간단한 속에 격외도리(格外道

理)가 다 갖추어져 있으며, 불교의 심심미묘한 뜻도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불법이 전해진 이후로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신심명 같은 뛰어난 문장은 하나일 뿐, 둘은 없다고 평합니다.

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무상정득정각, 곧 위 없는 평등심을 얻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모두 버리고 도를 닦는 것은 오직 평등한 세계로 들어가 해탈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등을 잃어버리고 저속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운(野雲)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을 끊어버리고 부모·형제를 떠나 출가한 까닭은 불법의 세계가 평등함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에 가

깝고 멀리하는 분별심 같은 것이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그렇다면 출가하였다고 무슨 덕이 있으리. 만약 마음 가운데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취하고 버릴 것도 없다면 어찌 이 몸에 괴로움과 즐거움, 성하고 쇠함이 있겠는가. 평등성(平等性)중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고 대원경(大圓鏡)위에는 가깝고 먼 것이 끊어졌느니라.”

이 같은 말씀은 깊이 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등한 불법에 계합하기 위하여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수도 하고자 하는데 마음을 평등하게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취하고, 미워하는 것은 버려버리는 분별심에 가득 찬 수행자라면 고락과 흥망성쇠를 절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초월하지 못한다면 삼계 가운데 영원히 윤회하는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취함도 버림도

다 떨쳐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취사분별의 마음이 떨어질 때까지 섬 없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평등성지(平等性智)와 원만한 대원경지(大圓鏡智)를 깨달아 얻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취사분별과 차별의식을 남김없이 버리고 또 버려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과 미움을 잔뜩 품고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악도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길 “삼악도의 고히(苦海)에서 출몰함은 미움과 사랑에 얽혀있기 때문이요, 육도(六道)를 오르내림은 가깝고 먼 것을 따져 지은 바 업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에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오로지 미워

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미움과 사랑에 얽혀 옳지 않은 업을 짓기 때문에 지옥에도 가고, 아귀도 되고,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세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까닭도 친하고 먼 것을 구별하여 마음속으로 갖가지 업을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곧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가지 차별세계가 전개되는 것이고 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주하는 돈 봉투의 두께에 따라 신도를 차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돈 봉투를 두둑하게 내어 놓으면 잘해주고,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푸대접하기도 합니다. 돈 많이 내었다고 염불 많이 해주고, 돈을 적게 내었다고 염불을 적게 해주기도 합니다. 허망한 욕심으로 인한 차별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그러한 차별심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

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해탈은 차치하고 삼악도와의 인연만 깊어질 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평등하게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현의 가르침을 입고, 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등한 데에 계합되면 취하고 버릴 것도 본래 없고, 만약 취하고 버림이 없다면 생사가 어디에 붙겠습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상정등정각, 더없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깊은 자비심으로 사랑과 미움을 넘어서고, 평등하고 원만한 마음가짐으로 가까이하고 멀리하는 차별심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해가다 보면 지계와 선정력과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서 무상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도(無上道)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여러 대중에 살면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만을 보아서 잡다한 일에 물들지 말고 오롯이 공부를 지어 가야 합니다.

그 공부가 어떠한 공부이든 즉 염불이든, 간경이든, 다라니든 주변 환경에 꼬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간다면 마침내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할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오입도요문론〉에서 대주 해혜 스님은 도 닦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일대사 인연인 해탈의 일을 위할지니, 아울러 처음 배우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배우며, 자기의 덕을 높이고 남의 능력을 질투하지 말며, 자기의 행동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면, 일체처에 방해되고 장애됨이 없어 자연히 쾌락할 것이니라.”

마음의 차별심을 떠나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수행해간다면 부처 자리가 그 마음을 여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황벽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도(道)를 배우는 이들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일체의 불법조차 배울 필요가 없다.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음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고, 집착함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나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곧 부처이다. 팔만사천법문은 팔만사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 다만 교화하여 이끌어주는 법문일 뿐이요, 본래 일체의 법이 없다. 그러므로 여의면 곧 법이요, 여윌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다만 일체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어야 할 법이 없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상이 황벽 스님의 십지법문(心地法門)입니다.

거듭거듭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행복하고 멋진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불기 2559년 6월 초하루 법문  
(2015년 7월 16일)

2015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윤청광 前)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  
8월 30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법정 스님 입적 5주기를 맞아 마지막 일요일에는 법정 스님과 함께하신 어른을 모셔서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8월에는 법정 스님의 첫 저서 ‘영혼의 모음’ 출간 시부터 인연이 되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을 맡아 근 20년 동안 가까이서 함께하셨던 윤청광 前)이사님을 모십니다.

윤청광 전이사님은 불자라면 한 번쯤은 BBS불교방송이나 책으로 보셨던 ‘고승열전’을 장기간 집필하셨으며, MBC에서 오발탄, 신문고, 세계 속의 한국인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저서로서는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회색 고무신 등이 있습니다.

##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날이면 날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다. 이제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을 만큼 만성이 되었지만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연하다 못해 벌어진 일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새벽 운동에 나선 70대 노인을 19세의 청년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노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고, 쓰러뜨리기까지 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고 애원까지 했다. 그러나 얼굴과 가슴 등을 계속 걷어차는 장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10대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길거리에 침을 뱉고 시끄럽게 떠드는 고교생들을 혼계했다가 5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있었고, 평택에서는 담배꽂초를 버리지 말라고 혼계하는 67세의 할머니를 20대 청년이 벽돌로 내리쳐 죽게 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통탄할 일이다. 실로 미래가 두려운 일이다.

과거의 우리 사회는 잘못을 나무라고 꾸짖는 어른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덕망을 갖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청소년들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

리 사회에 어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바로 잡아 보겠다고 나섰다가는 봉변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큰 화를 당하게 될 터이니 못 본 척 외면하고 피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절제하며 인내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정신을 길러주기보다 옆집 아이보다 앞서가야 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과 의무로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

외국에서 오래 살다 귀국하여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났다. 그분은 사람들이 너무 급하고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인정도 사정도 없는 고국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렵다고 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몇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한결같은 대답은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편히 살려고 한다.” 라고 하더라. 정말 그

럴까? 그것이 삶의 최대 목표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고, 뒤 돌아보지도 않고, 옆도 살펴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다.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봉사 명령을 받은 3학년 학생 4명이 일주일 동안 부름의전화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학생, 불량 동아리에 관련된 학생 두 명,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된 학생이었다. 자원 활동이라는 것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일인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벌 받는 일로 장애인 돕는 일을 하라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장애인에

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누군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쾌히 승낙하였다.

벌 받는 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신경 쓰며 쉬운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편지봉투에 우표 붙이기 1,000장, 비에 젖은 일회용 비옷 200장을 마른 수건으로 물기 제거하고 손질하기, 손놀림으로 보아 억지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르는 척 함께 일을 하며 일회용 비옷도 손질해두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원을 절약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어 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봉사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 시간이나 때우자는 속셈이 분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우리 집에 있는 일회용 비옷도 정리해야겠다.”고 한 학생이 진심 어린 모습으로 말했다. 학생들은 변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 시각장애인 안내 활동을 해보기로 했다.

숙련된 어른 활동자가 동행하며 시각장애인 안내 방법을 실제로 지도해 주었다. 시각장애인이 학생의 팔을 잡고 걸어가며 주변의 상황이 나 건물, 특별한 물건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맞게 설명을 하게 하였다.

‘시각장애인이 다칠까 봐 신경을 쓰면서 걸었지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도 시각장애인은 밝은 표정으로 미안해하는 나를 위로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은행에서 불일을 보고 시장에서 구두를 살 때 돈도 구별을 잘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불만스럽고 부모님께 근심만 끼쳐드렸던 일이 뉘우쳐졌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활동보고서를 읽으며 우리는 지금 밝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 관음상으로 해서 생긴 법정 스님 이야기 ②

글 • 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



첫날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음보살이 들고 있는 병은 무슨 병 입니까? 스님의 대답이 정병(淨瓶)이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무슨 관 입니까? 화관(花冠)이다. 손은 왜 들고 있습니까? 구교(救苦)이다.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즉문에 즉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일을 시작했는데 세 시간쯤 휴를 붙이고 나니 다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보기에다 좋아서 길상사에 전화를 했는데 보통은 주지 스님이 받는데 그날은 법정 스님이 그 방에 앉아 계셨던지 받으셨습니다. 당황해서 내가 “관음상 휴를 붙였는데 다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그런가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내가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 내 감으로 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걸릴 테니 연락할 것이니 그때 오십시오! 그랬다. 스님하고 무슨 일이 되면 격식과 간격이 없어서 시간과 거리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주 교회에서 장 익 주교님하고 일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2000년 4월 관음재일에 맞춰 점안식이 있었고, 나보고도 한마디 하라 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 무슨 경계가 있는가.’

스님은 가시고 빈 마당에 지금도 서 있는 나의 석조관음상은 조금은 외롭게도 보이지만 지금도 열심히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의 종교미술에 대해서 불교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끝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이종승 기자와 만났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을 7년간 따라다녔는데 사진 한 점을 건지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나 했더니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길상사를 드나들었지만 법정 스님의 환한 얼굴사진을 다른데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40대의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찍은 데에는 이상한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상사를 안 맡았더라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 어두운 끼가 있는 얼굴이 진짜 아름다운 법정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젊어서 좋은 친구가 많았고 줄곧 좋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대학시절 예술의 길에서 만난 두 스승과의 인연은 큰 행운이라고 남들이 말합니다. 조각가로 김종영 선생, 화가로 장욱진 선생입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특히 후원은 스승과 제자가 그야말로 막역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1982년에 작고하시고 한 분은 1990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섭섭함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기대고 있던 큰 나무가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허전한 것이 3년이나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에 큰 스승을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종교의 길 가운데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을 만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동갑이고 김추기경님은 열 살 위입니다. 예술과 종교가 같지는 않지만 또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예술 쪽에서

스승을 여의고 종교 쪽에서 스승을 만난 것은 순서상 잘 된 일입니다. 네 분이 다 똑같이 깨끗한 분들이고 마음은 넓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김 추기경 만나서 어떤 날,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 분 스승이 있어서 잘 놀았는데 다 세상 뜨시고 요즘 심심하다 그랬습니다. 추기경님 말씀이 “하느님하고 놀아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웃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농담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명동에서 교구장 일을 내놓으시고 혜화동으로 가시고 또 미국 가서서 한동안 쉬었다가 오셨다 하기에 내가 이제 용건 없이 추기경님 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 날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마음 비우는 얘기가 되고 정신이 번쩍 나서 비우는 문제는 나도 조금 해 보았는데 잘 안되던데요 그랬더니 “나도 그래” 하시면서 웃으시더니 “죽어야 돼” 그러시더니 “15분이 더 있어야 돼” 하셔서 그 날은 정말 한가하게 웃었습니다.

김 추기경도 가시고 법정 스님도 가시고 좋아하는 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기댈 데가 없이 하느님하고 놀 때가 싶습니다. 추기경님이 병석에서 고생하시고 계실 때 강남성모병원에 갔더니 말끔히 세수하시고 옷도 새것으로 입고서 약속된 그 시간에 의자에 내려 앉아 계셨습니다. 늦잠자다가 아침미사를 빠뜨렸다고 수녀님 또 아줌마들이 놀려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추기경님은 말씀도 못하시는 형편인데 내 귀에다 대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 그러시기에 내가 나가서 만천하에 다 글로 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병실이 떠들썩했습니다. 30분 쯤 웃다가 나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보통일이 아니구나. 그 힘드신 시간에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셨구나 생각하니 저분은 참으로 성인이다.

두고두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저런 어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바입니다. 법정 스님이 병실에 계시다는 소

식을 듣고 장 익 주교께는 알려야 하겠다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당장 가서 봐야겠다고 서둘러서 다음날 우리는 스님을 마지막 만나는 인사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눈이 마주치자 누운 채로 “원(願)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푹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산에 눈 구경 같 거라고 그래서 눈도 많이 왔는데 지겹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남고 저이가 가는 구나 우리의 인연이란 게 여기까지인가 마음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내가 손 인사를 하였더니 스님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한 해라는 시차를 두고 나의 종교의 길 스승을 두 분 다 여의었습니다.

두 분의 장례예절 모습은 세속의

일과 달라서 그 분들의 한평생 사진 것처럼 꽃 한 송이 없는 명동이고 꽃 한 송이 없는 길상사였습니다.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전체가 한 송이 하얀 꽃같이 신선하였습니다. 두 분이 없는 공백은 얼마나 더 갈지 사회가 심난할 적마다 생각나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두 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저 너머에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다하는 것을 나는 푹푹히 보았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여유, 승리라 할까요, 죽음이란 누구나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두 분은 가시면서 세상에다 「희망」이란 큰 선물을 놓고 가셨습니다. 명동성당에서 길상사에서 끝이 안 보이는 긴 조문행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냥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 마음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최종태 교수님께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강연을 의뢰하였으나, 말주변이 없다며 극구 사양하시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은 2011년 6월 30일 천주교회 명동대성당 고스트홀에서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강원용 목사 이렇게 세 분을 기리는 범 종교행사에서 법정 스님에 대하여 추모하는 최종태 교수님의 연설문 초록입니다.

## 희랍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저자인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다. 바로 이 책에서 말고자 하는 바와 같다. 소설의 배경은 지중해의 크레타 섬, 대략 20세기 초라고 한다.

35세의 작가인 ‘나는 상속받은 탄광을 운영해볼까 하고 크레타 섬으로 가는 도중, 운명처럼 65세의 알렉시스 조르바를 만나 그를 고용한다. 원래부터 책상물림이며 부처에 심취해 있고 단테를 옆구리에 끼고 읽는 ‘나와는 달리, 조르바는 석수장이, 광부, 행상, 대장장이, 전투요원, 밀수꾼 등 온갖 세상 험한 일을 몸으로 부딪

치며 겪어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다가온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와 돌과 새를 보고도 경탄한다. 그는 어제 일을 후회하지도, 내일 일을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만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 말로 표현하는 대신 춤을 춘다.

그렇다고 조르바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가끔씩 ‘나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진다. “만물이란 모두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요? 누가 이들을 창조했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리고 왜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점차 조르바에 동화된다. “그는 싸우고 죽이고 사랑하면서 내가 펜과 잉크 속에서 배워려던 것들을 고스란히 몸으로 살아왔다”며,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자세를 후회한다. 조르바는 헤어지기 직전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긴 줄에 매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걸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요.”라면서, 그 끈을 잘라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희랍인 조르바(번역본에 따라서는 ‘그리스인 조르바’로 되어 있음)는 1942년 발표되어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 잡게 한 작품이다. ‘조르바’라는 야생적인 인간의 의식과 생활을 추적하여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물질 문명과 학식, 지식주의에 매몰되어 인간 고유의 본질적 삶을 상실한 현대인을 통렬히 풍자,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지향, 즉 우주 만물과 자연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건강한 인간의 존립

을 제의하고 있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로 불리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 크레타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다. 호메로스와 베르그송, 니체를 거쳐 부처, 조르바에 이르기까지 사상적 영향을 고루 받았다. 그리스의 민족시인 호메로스에 뿌리를 둔 그는 1902년 아테네의 법과대학에 진학한 후 그리스 본토 순례를 떠났다. 1908년 파리로 건너간 카잔차키스는, 경화된 메카니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창출하려 한 앙리 베르그송과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초인’으로서 완성될 것을 주장한 니체를 접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투쟁적 인간상”을 부르짖었다. 또한,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객체인 세계를 하나로 아울러 절대 자유를 누리자는 불교의 사상은 그의 3단계 투쟁 중 마지막 단계를 성립시키는 데 큰 이바지를 했다.

##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었다.

내가 살아 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예쁘고 잘 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 故장영희 서강대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듯,  
살아보며 느끼는 것 또한 다를 것입니다.

보편적인 답은 있을지언정  
정답은 없는 것이 각자의 인생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남들 눈에 좋게 비치든 나쁘게 비치든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온 날을 정리할 줄 아는  
마음가짐, 바로 그것입니다.

소신껏 사세요.  
그러나 살면서 자신에게 중간보고하는 건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바로 의미 있게 사는 Tip입니다.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 '따뜻한 하루'

## 8월 결연대상자 - 이판암 어르신

1년 전인 2014년 7월에 이판암 어르신(73세)은 큰 이별을 겪습니다. 77년 생으로 한창 젊음을 누리야 할 하나뿐인 아들이 오토바이로 통닭을 배달하던 중 차 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3년 동안 경희의료원, 녹색병원, 온누리병원을 옮겨 다니며 7~8번의 크고 작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화장하여 용미리 제2 묘지에 안치하였고 아들과의 추억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지면 한 달에 한 번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눈이 더 나빠지면서 명절 때 외에는 가지 못합니다.

어르신은 2015년 초부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은 예전에

실명이 되었고, 남은 왼쪽 눈이 녹내장인데 치료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겨우 명암을 구분하는 정도의 시력만 남아 있지요. 15년 전에 시작된 당뇨와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남은 왼눈의 시력이 회복될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한 채 의정부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코로 내시경을 집어넣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수술 결과 여전히 사물은 뿌옇게 보입니다.

뇌종양 수술비가 280만 원이 나왔지요. 아내분이 동네 지인들을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돈이 아니었으면 퇴원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니다. 앞으로도 2개월을 더 갚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드님의 뇌수술비도 온전히 어르신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5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중에서 2천만 원은 일산구청의 긴급 의료비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다 끌어모아 충당을 했습니다. 아들 친구들의 십시일반으로 2천만 원을 더 모을 수 있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병원에 갚겠다는 각서만 써주고 나왔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로 7백만 원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현재 매달 6만5천 원씩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15년이 지나야 끝이 납니다. 어르신 연세가 올해 일흔셋이니 15년이면 여든여덟이 되어야 다 갚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6만5천 원이라는 돈은 어르신 부부가 받는 수급금 69만 원(부부 합산금액)에서 아껴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갚는다. 수급금이 적은 듯해도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고마워서 동사무소 가서 더 달라고 못한다”며 신세를 지지 않고 갚으려는 의지를 내비치셨습니다.

요즘 어르신은 점점 눈이 나빠지면서 외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집 근처 뚝방에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이 외출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지요. 다행스러운 점은 아내분이 그나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며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부항을 뜨는 것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덕에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형제분들은 모두 사망했고 79세 되신 작은 누님 과도 왕래가 없기에 두 분은 서로에게 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따뜻한 손

글 • 윤언덕

중2 때의 일이다. 우리 집 뒤 작은 언덕에는 형관네가 살고 있었다. 형관은 나보다 한 살 형이었고 학년도 한 학년 높았지만 어릴 적부터 이웃에 살다 보니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다. 형관은 편모슬하에서 네 살 위인 형과 함께 세 명이 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지금도 어스름하게 기억하지만, 유달리 선량하고 고운 얼굴과 심성을 가진 분이 형관 어머니였다.

형관의 손위 형은 당시 고등학교생이었는데 유달리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형관이 어머니는 봉제 하청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형관네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빈도가 심해지기 시

작했고 이후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날마다 형관집에서 악다구니 소리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빗쟁이들이었다. 짐작건대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내며 생계를 도맡고 있던 형관 어머니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태에 빠지고 만 것으로 생각된다. 형관 어머니는 우리 집과도 친한 이웃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얼마간의 빚을 지고 있었다. 요즘 돈으로 몇백만 원 정도 되었을 것이다.

알고 보니 우리 집 말고도 동네에 사는 몇 명의 채권자들이 더 있었다.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 교과서

도 못 사주면서 모은 돈인데…….’하며 형관이 집으로 달려갔다. 바로 뒷집이었으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어머니는 빚 독촉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친한 이웃이기에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다만 몇 푼이라도 빚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렸다. 여러 사람의 빚 독촉에 고심하던 형관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경찰이 오고 의사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임이 밝혀졌다.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빚 독촉을 당하던 형관 어머니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빚 독촉을 하던 이웃들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앞으로 빚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걱정은 아예 사라졌다.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모두 죄인이 되어버린 탓이었다.

형관이 먼 친척 어른들이 와서 이

틀 만에 쓸쓸한 장례를 치르고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고3이었던 형관이 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개 같은 인간들아! 우리 엄마 살려내라!”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컵의 물이 넘치는 것은 항상 마지막 떨어진 한 방울 때문이다. 형관 어머니에게 빚 독촉한 사람 중에 맨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기에 그는 그랬을 것이다. 이웃 중 다른 사람이 마지막에 그랬다면 그는 그 집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절규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어렴풋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생각은 돌아가신 형관이 어머니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나만이라도 기도해야겠다는 것 정도였다. 이후 그들 형제는 친척 집으로 입양되어 동네 사

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골치 아픈 일을 안고 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잊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인간 뇌 구조가 만든 망각의 장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중 3이 되었다.

당시의 시내버스는 이랬다. 아침 시간, 콩나물시루처럼 딱 찬 그 속으로 사람을 계속 밀어 넣는 버스안내양이 있었고 그 아귀소굴과 같은 공간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 상례였다. 등굣길,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다섯 정거장 정도 갔을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비집고 안내양 옆 버스 문 쪽으로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누군가 하며 내 손을 잡고 있는 이를 쳐다보니 형관이였다. 나보다 한 학년 위인 형관은 명문 상업고등학교 교모를 쓰고 있었다. 순간, 나는 표현하기 힘든 죄책감 때문에 온몸이 마비된 듯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나는 충격 흡수 마루가 깔리지 않은 곳에서 기계체조를 하는 것처럼 힘이 들었다. 형관은 내 생각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우연한 만남을 반가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린 시절 내 친구 형관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날 고의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해진다. 형관이가 그날 내게 차갑고 냉정한 표정을 지었으면 평생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

그 시절, 앞집에는 둘도 없는 동갑 친구가 있었다. 친구의 부모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들과 내 부모님 역시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죽마고우인 그와는 서로의 결혼식에서 한번 만나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서로 시느라 너무 바빴던 탓으로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명문대 공과대학 금속학과를 나온 친구는 IMF 사태로 실직한 후에 그야말로 숨쉬기조차 힘

든 중년을 보냈다. 그러다 내 어머니의 장례식에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그가 문상을 왔기에 재회하게 되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날 이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와 나는 자주 만나서 신세타령을 하며 소주잔을 만졌다. 친구 역시 그랬는지 나를 만나면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듯 그간 성인이 된 후에 맛봤던 삶의 신산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큰마음을 먹고 친구에게 위의 형관이 이야기를 했다.

“형관이 알지? 우리 뒷집에 살았던…….”

“기억하지. 그럼……. 이야기해봐라.”  
형관이 어머니의 죽음과 나의 죄책감, 이후 버스에서의 스치듯 이뤄진 짧디 짧은 만남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내 이야기를 쭉 들은 친구는 간단하게 결론을 지으며 대답을 마쳤다.

“그때는 너무도 가난했을 때,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누구 잘못이라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빛 독촉을 했던 어머니를 이해하며, 어른들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밤새도록 울부짚었던 형관의 형을 이해한다. 지나간 시대의 야만과 암흑의 순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나는 추락하지 않도록 자신을 붙들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살았던 방식이 오직 진실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 진실이 나의 삶에 항상 명예가 되었다고, 그러나 나를 가장 부끄럽게 만든 것은 형관이와 버스에서 만나기 전까지와 만난 이후에도 죄책감 때문에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던 나의 소심함이 아닐까 한다.

윤부혁 '윤언덕'이라는 필명으로 '인문학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젊은 세대들이 필히 읽어야 할 고전'에 한정하여 글을 쓰는 블로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그룹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근무했으나 본업보다는 '책읽기와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하여 임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문 번역, 기업체 사보 편집일 등을 하고 있으며, 틈만 나면 지리산 근처에 내려가 친환경.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펼칠 수 있는 '적당한 터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 부모의 과육, 사랑인가 폭력인가?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임신하면서부터 태아 교육을 시키고,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짓고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미리미리 계획까지 다 짜 놓았습니다. 집에는 아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면 좋다는 것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갖춰놓고 성장 단계별 읽을 수 있는 전집류까지 방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나 건강을 해칠까 가슴기에 공기정화기까지 갖추고 나이에 맞는 놀이기구까지 없는 게 없이 모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좋다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수소문해 보 내면서부터 어머니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교육 관련 강좌라는 강좌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배우고, 컴퓨터를 검색해 육아 관련 정보를 섭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남보다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은 어떤 색깔을, 먹거리는 어떤 것이 건강에 좋은지, 이렇게 아이가 좋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영어는 필수니까 영어 학원을, 교양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피아노며 미술학원에 보내고 호연지기를 위해 웅변학원,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이렇게 학원이라는 학원은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한 가혹한 엄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아 어머니는 안달합니다. 100점을 받아야 해! 남에게 지면 안 돼...! 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욕심과는 다르게 나약한 마미보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꺼질세라 붙면 날 아갈세라.’ 그렇게 키우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언제부터인지 아이는 엄마의 인형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입을 옷도 엄마의 취향대로, 먹는 음식도 엄마의 식성대로, 학교에서 하교할 때도 엄마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이 과연 교육적이기만 할까요?

엄마의 욕심이 아이를 병들게 하

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자연의 구성체에 불과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과 햇볕과 공기가 필요하듯, 사람도 흙을 밟으며 물과 공기와 햇볕이 필요하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자연과 만나 꽃이 왜 피고 열매가 왜 맺는지 바람은 왜 불고 비는 왜 오는지,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농부와 어부들의 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야 합니다.

친구가 없이 자라는 아이가 행복하 기만 할까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듯 엄마 아빠의 사랑뿐만 아닌 친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의 우정을 알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인성교육 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바쁘게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성 교육을 받으면 인성이 저절로 길러

질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인성교육 특강을 들으면 우리 아이 인성이 쑥쑥 자랄까요? 인성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면 인성이 저절로 길러지겠습니까? 인성교육의 핵심가치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이라며 반복 학습을 하고 흑판에다 뜻을 적고 외우면 아이들의 인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정서적인 발달은 식물이 자라는데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 아이들도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 간에 놀이를 통해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인성교육을 받고 영어 문법이며 방정식, 미적분 점수만 많이 받으면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42.1%에 불과하고, 어머니와는 22.4%가 30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대화까지 단절된 가정에 가정교육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이 놀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정서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어머니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말을 잘 듣고 읽고, 쓰기도 중요하고 계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사고력도 중요합니다. 또 노래도 잘 부를 줄 알고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정서적으로 밝고 맑은 심성과 서로 사랑하고 믿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 땅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지식이 많은 사람과 가슴이 따뜻한 사람' 중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지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 내 부모와 내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 내가 살고 내 뼈가 자라는 내 고향, 그리고 우리 문화와 민족, 동포에 대한 민족애를 모른다면 그런 지식이 정말 소중하기만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만 아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안내해 줄 수는 없을까요? 세상 공기는 자꾸 혼탁해져만 가고, 마실 물, 먹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을 넣은 음식이 먹기도 좋고 맛도 좋지만, 건강을 해치듯 눈앞이 보이는 이익,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로 아이들은 개성도 소질도 특기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비싼 옷, 좀 더 영양가 있는 먹거리, 좀 더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는지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가르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마

가 세상일에 쫓기는 동안 아이는 어느새 몰라보게 자라고 맙니다. 더 많은 사랑,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학원으로 보내는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딸 손을 잡고 더 넓은 자연 속에서 함께 보낼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이들과 뒹굴고 울고 웃으며 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는 없는지요?

아이는 어른의 부속물도 어른이 못된 미완성품도 아닙니다.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 현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벼 포기를 뽑아 올린다고 벼가 더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바르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부모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의 과욕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 미워해도 휘둘리고 집착해도 휘둘립니다

글 • 김지연(희곡작가)

광대는 흔히 배고픈 직업이라 합니다. 물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제왕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스타도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광대는 세상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견주어보면 배꼽은 일이 더 많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고 큰 사고치지 않으며 연차가 쌓이면 어느 직종이든 종사자의 반 이상은 입에 풀칠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광대들은 십년 이십년이 지나 대선배가 되어도 스타가 되지 못하면 가족에게 기대어 살거나 다른 직업과 병행해야 견디는 일이 허다하지요.

재주를 보여주고, 재주 없는 자들의 갈채를 받아먹고, 그 갈채 끝에 쥐어지는 푼돈으로 살아온 것은 광대들의 오랜 역사입니다. 어차피 못

버는 돈, 가질 수 없는 권력. 그러다 보니 광대들은 세상에 입바른 소리도 곧잘 보태고, 저들끼리 푹푹 뭉쳐 지내며 독특한 세계를 형성해올 수밖에 없었지요.

어렸을 때는 돈과 권력에 초연해 보이는 광대들이 참으로 멋져 보였지요. 게다가 뭔가 신비에 싸여 있는 듯한 그들만의 세계는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초탈함으로 가득해 보이기 까지도……. 그래서 저도 그들을 따라 세상에 초연해지고 싶어서 광대를 동경하고 소망했지만, 막상 철들고 공부하며 겪으며 어울리게 된 광대들의 세상은 날 선 이진투구의 막장이었습니다. 멋모르고 동경했던 그들의 초연함은, 세상을 향한 독기와

자신을 향한 채찍질의 결과라고 알게 되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광대들의 세상을 기웃거리던 입문자들은 그 고생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금세 떠나버리고, 겨우겨우 그 고생을 견디고 이름을 세우게 된 이들은 그래서 더욱 바깥세상에 배타적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간난신고(艱難辛苦) 없이 사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글쟁이를 만나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거 소설로 쓰면 대박칠 걸'이라 말하고, 어르신들은 '내가 재주만 좀 있었으면 내 칠십 평생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페 돈을 벌었을 거야'라고들 하십니다. 저 역시 넉넉지 않은 형편에 돈 안 되는 광대 짓을 한다고 어지간히 거지꼴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격조를 가지기는커녕 대중의 놀임감으로 취급당하기 일쑤인 광대의 역사를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주변의 오해를 사기 일쑤였죠. 그 때문

에 꽤 오랜 시간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리기도 했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한 일도 아닌데, 직업에 귀천이 없거늘, 어째서 광대라는 이유로 그토록 모멸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어째서 광대의 삶과 역사는 학문의 대상이 안 된다고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하다못해 뱃속에 들어앉은 기생충도 연구하는 21세기에, 인류의 문명과 문화에 윤기와 색채를 더해진 공연의 역사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듯이 폄하를 당해야 하는 걸까.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 스타가 된 광대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시콜콜 삶의 매 순간을 스토킹당하고 품평당합니다. 악플에 시달리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거나, 돈도 인기도 팽개치고 다른 직업을 찾아 도망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중의 눈에 시달리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에 손을 대기도 하고, 큰 실수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도 하죠.

정반대로 스타가 되었다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었다고, 세상을 온통 얻은 듯 구는 못난이들도 있습니다. 남을 모멸하고 이용하고 짓밟거나, 더 큰돈을 벌겠다고 사기를 치거나, 그래놓고도 본인의 인기를 악용해 팬들에게 읍소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숙하겠습니다, 팬들이 원하시면 그만 두겠습니다'로 일관하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뻔뻔한 이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광대로 사는 가난을 이기지 못해 도망가거나, 또 적지 않은 이들이 쥐꼬리만큼 얻은 돈과 권력을 자랑하며 남들을 짓밟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돈이 뭐지, 왜 돈에 다 미쳐 돌아가는지를 의심하며 더더욱 돈과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돈을 얻었다고 남을 짓밟는 사람은 돈이 없었다면 없는 대로 남을 뜯어먹으려 들었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돈

이 안 된다고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을 외면하고 다른 삶으로 떠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봤자 조금만 고난이 와도 또다시 도망친다는 것을…….

그 이치를 모르고 왜 그토록 돈을 미워했을까?

제 한탄에 벗이 답해주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힘들어서 저는 돈을 미워했지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나쁜 거라고, 사람에게에는 죄가 없고, 돈이 원수라고…….

세상 만물에는 진실로 다 각자 마음이 있나 봅니다. 돈을 미워하는 제게 돈이 모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좋은 공연을 만들고, 더욱 깊은 연구를 하기에는 또 역시 돈이 필요했습니다. 공연장에 더욱 좋은 조명을 하나 더 달고, 더욱 실력 있는 배우 한 명 더 구하려면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구하기 어려운 책 한 권 얻는 것도, 이웃 나라

공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찾아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다 돈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고생하며 돈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라고.

돈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돈도 결국은 사람이 세상 살기 편하려고 만들어낸 것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품은 사람의 욕망이 죄입니다.

돈에 지나치게 초연하려는 태도도, 결국 돈을 원대로 벌지 못할까 봐, 돈 벌이가 잘 안 되어 상처받을까 봐 미리 방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연하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막상 생각지 못한 큰돈이 들어오면 크게 망가지기 마련이더군요. 돈이 있고 없고는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밖으로 꺼내 보여 주는 내시경 같은 구실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워하면 상대는 반드시 내게 복수를 하게 마련이고, 집착하면 상대는 반드시 나를 휘두르게 마련입니다. 불기근불가원. 필요 이상 멀리해

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 가까이 품어도 안 됩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바라면 세상에 죄를 짓는 일이고, 노력한 만큼 주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은 내 노력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죄짓지 않고 내게도 죄짓지 않고 살기란, 매 순간 참 많은 긴장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죄만 많이 짓고 살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힘없는 처지에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뺨치고 뜯기는 신세에 속이 끓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한이 많이 쌓여 속이 터질 때, 광대들이 재주 판을 벌이면 그 자리에 오십시오.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짓은 바보라는 속담도 있지만, 힘없는 민초들이야 세상에서 뽕 맞고 놀이판에서 속풀이하는 수밖에요.

기쁨은 기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몫입니다. 피로에 굳은 어깨를 펴고 햇볕 듬뻍 쬐며 어제까지 쌓였던 눈물을 털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글 • 현정화(회원)

오늘날 생존경쟁의 험난한 길에서 청년들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마음으로 파고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긴장감 속에 우리는 꾀꿉한 용기로 도전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좌절과 실패를 가져다주더라도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장애를 잘 극복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의 소유가 아니라 성찰이라는 깨달음으로 큰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경쟁의 적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 고정관념입니다.

실수가 다음번에 성공의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사회생활에서의 일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되어져 기쁨과 성취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와 달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상호조화와 부드러운 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태양은 늘 매일 밝게 떠오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연 속에서 큰 스승을 만나는 것처럼 매사에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해나가는 유연한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제는 오늘의 경험이 되고 내일은 성공의 희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의 지혜를 끌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독서와 명상, 깨어있는 자각의 마음이 늘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저녁에 TV나 인터넷 등 외부의 소리를 잠시 중단하고 단 십 분이나, 삼십 분이라도 자기 자신의 참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밖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면 허전하고 쓸쓸한 공허감이 옵니다. 자신의 참 부처(자성불)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선하고 진정 아름다운 것에 조금씩 스며드는 환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에 법열을 느끼게 되고 나 아닌 상대방 다른 모든 이들의 존재감에 더불어 사랑하고 함께 공감하는 나 자신의 큰 그릇을 만드십시오.

이 세상에 불법을 만나서 마음 수행을 잘한다면 더 큰 친구가 되겠지요.

어떤 때에는 잠들기 10분 전에 오늘의 아침 일과부터 저녁의 자신의 언행을 깊이 숙고하여 내면의 성찰 시간도 가지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순간적인 허전함을 피하려 쾌락과 향락, 오락은 내 참 마음의 검은 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밝고 맑은 마음으로 끌어내는 광명 자유인이 되십시오.

여기에는 학력, 용모, 외부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신의 성찰과 부단한 의지노력만 있으면 더욱더 성숙한 자기 자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실된 참 자유인과 진정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만 하는 밝은 불성을 찾아야 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순경계와 역경계를 잘 극복하여 포기하지 않는 지성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날마다 기쁜 날 되소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만일 소주를 한 잔 버렸다면 무려 3천 리터의 물이, 똑같은 양의 요구르트는 2천4백 리터의 물로 정화해야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 한 컵 분량의 김치찌개를 버렸다면 6백 리터, 우유는 3천 리터, 식용유는 소주잔 한 잔 정도 버렸을 때 1천 5백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돼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 토양은 물론, 대기와 수질, 지하수 등 총체적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우리 함께 실천합시다.

- ①식단 계획을 짰 후 꼭 필요한 식품만을 적정량 구매한다.
- ②식품 구매 시 신선도가 좋은 식품을 선택한다.
- ③음식 조리 시 식사량을 생각하여 알맞게 조리한다.
- ④찌개류는 꼭 먹을 만큼만 조리한다.
- ⑤식사 시에는 소형 찬그릇을 사용한다.
- ⑥음식점에서 남겨진 음식은 청결하게 포장하여 싸운다.
- ⑦결혼 예식장 등에서 음식물을 접대하는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한다.
- ⑧여행 시에는 도시락을 준비한다.
- ⑨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 ⑩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여 퇴비,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한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 맑고 향기로운 글을 나누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뜻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처음 창간하여 매월 법정 스님의 글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글, 지역 모임의 활동 안내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행사 및 법회 등의 소식을 담아 회원 과 신도를 비롯하여 길상사 방문객,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은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작은 감동,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한, 뜻을 함께할 여러 작가님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 • 모집 부문

- 창작 문학(수필, 에세이, 칼럼, 시, 만화, 사진)
-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 모집 안내

- 회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접수 및 문의받습니다. 중앙사무국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작가의 의향에 따라 연재물은 원고료를 지급하며, 회원이나 독자의 글(단편)은 채택될 시 귀한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띄어쓰기 주의, 컴퓨터 용어, 과한 한자 사용, 종교 비판 및 폄하는 피해 주십시오.
-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택된 원고는 편집방침에 따라 일부 수정하거나 분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아름다운 만남' 함께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몸노인과 청소년 간의 아름다운 만남

(소감 : 문인무 학생)

함께 봉사하기로 한 오빠와도 시간이 안 맞았고, 메르스도 유행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오늘(7월 18일) 뽕기로 한 김방자 할머니와의 만남이 나에겐 첫 번째 만남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안근호 간사님과 함께 김방자 할머니를 찾아보았다. 우리가 할머니 댁에 도착하기도 전에 김방자 할머니가 먼저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셨다.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설레는 만큼 어르신도 설레고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라는 거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방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다. 할머니가 옛날에 무릎 수술했던 이야기, 멋진 남편이었던 할아버지 이야기, 또 지금도 할머니를 괴롭히는 대상포진 이야기까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할머니의 지난 인생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본 것 같았다. 나는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계시지만 외가와 친가 모두 전라도 쪽에 계시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

번 봉사를 통해 김방자 할머니라는 또 다른 내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댁을 방문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손잡고 사진 찍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할머니께는 설렘과 기쁨을 가져다 드린다는 사실이 마냥 기뻛고 만족스러웠다. 다음 봉사하기까지 할머니와 계속 연락하기로 했고, 집도 가까운 편이라 봉사 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자주 뵙고 싶은 마음이다.

### 2030 문화와 함께하는 푸른 모임 안내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여러 자원 활동 등에 젊은 층들의 참여와 활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맑고 향기롭게 회원 또는 길상사 신도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 중 20대에서 30대 청년들 간의 문화 만남을 통하여 차후 봉사활동까지 펼칠 '2030 푸른 모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푸른 모임'의 명칭은 법정 스님께서 지어주신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의 초창기 이름으로 긴 휴식시간을 가지고 올해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청년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알림' 참조(www.clean94.or.kr)

### 7월 푸른 모임 활동 소감(담당: 안근호 간사)

한낮에 폭염주의보가 예고될 정도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공연 시간을 앞두고 한두 명의 푸른 모임 회원들이 속속 대학로 유니 플렉스 공연장으로 모였습니다. 7월에 선택한 공연은 우리나라

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작품으로 뮤지컬을 잘 보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봤을지 한 사랑은 비를 타고였습니다. 공연장은 생각보다 작아 웅장한 맛은 없지만, 배우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첫 등장은 40대 음악 교사로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꿈을 접은 집안의 장손과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재질이 뛰어나 각종 콩쿠르에 나가면 상을 받고 했지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고 돈을 벌러 원양 어선을 타고 나가 수년 만에 형을 찾아오는 30살 동생이 등장합니다. 돈은 벌었지만 꿈을 잃은 동생을 피아니스트로의 꿈을 되찾아주고 싶은 형은 갈등하고, 이 둘의 갈등을 풀어주고 화해의 메신저로 생기발랄한 20대의 생일 이벤트 직원 이 등장하며 사랑 이야기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형제는 피아노 듀엣곡을 연주하고 새로운 삶을 예고합니다. 이 형제와 젊은 청춘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공연 뒤에는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튀김 요리에 인생을 거느라 아직 결혼도 못 했다는 주방장이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지요. 바삭한 식감이 군침을 들게 했지만, 양이 너무 적더군요. 맛도 좋고 양도 많은 음식 적 없네요. 5시에 들어갔는데 오픈 시간인 지라 다른 손님 없이 푸른 모임 회원들만의 전용 공간에서 식사하는 기분도 잠시 맛보았습니다. 8월 푸른 모임은 16일 일요일 오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15년 숲기행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우러짐을 찾아서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65세 이하
- 접수 :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8월 3일)부터 전화, 방문 선착순 40명까지 접수 (02-741-4696)
- 준비물 : 개인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산 준비)
- 참가비 조정 : 30,000원(회원, 봉사자, 신도, 일반 참가자 동일하게 적용함)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참가비 입금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일정 안내)

**9월 5일(토)** : 충북 하늘재의 자연 생태와 역사 문화 탐방

- 중원 미륵리 사지 탐방 => 속리산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및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하늘재역사관찰로)의 자연생태 탐사(왕복4km) => 사자빈신사지 탐방
- \* 숲기행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의류 재순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지나 안 쓰는 원단을 기증받습니다. 시



민모임 「Maeng and Hangeumge」 중앙모임에서는 생활 속에서 의류 재순환(리사이클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지는 원단(면, 실크, 폴리, 자카드, 옷감 등)을 기증해주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증해주시는 원단은 가방, 매트, 앞치마, 실내화 등 재순환되어 수명을 연장하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의류 리폼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옷,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나눔장터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의류 리폼 봉사팀에 함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류 리폼 봉사팀은 자발적인 선의로 모인 자원 활동가의 사랑방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류 재단, 디자인, 리폼, 리사이클에 소질과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도 꾸준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말벗 봉사에 참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결식이웃 후원 대상자 중 홀몸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

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참여해주세요.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 30일(넷째 일) 오전 11시/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목, 금요일(6,7,20,21,27,2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 3월~11월 둘째 목요일(13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3,10,17,24,31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묘화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2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5

일)/오후 1시30분/숫달타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5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 2일(첫째 일), 30일(마지막 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5,12,19,26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봉사모임:매주화요일(4,11,18,25일)/세계일화실
- 녹색 나눔 장터 : 30일(넷째 일) 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맏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맏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 강의/12시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맏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맏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지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철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 광주모임에서 맏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맏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 다라니기도

- 일시: 8월 1일(토) 오후 8시
- 장소: 극락전

### 입시기도

- 일자: 8월 5일(수)~11월 12일(목)
- 장소: 극락전
- 시간: 오후 2시
- 기도비: 10만원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8월 8일(토) 오후 8시 30분  
~ 8월 9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백중 재사

- 4재. 8월 7일(금) / 5재. 8월 14일(금)  
6재. 8월 21일(금) / 7재. 8월 28일(금)
- 장소: 극락전
  - 시간: 오전 9시 50분

### 지비도량참법 기도

- 일정: 8월 19일(수)~8월 27일(목)
- 장소: 설법전
- 시간: 오후 2시

### 칠석기도

- 일시: 8월 20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기도비: 1만원

### 추계관음기도

- 입재: 8월 29일(토) 오전 9시 50분
- 회향: 11월 2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기도비: 5만원

### 불교입문 31기 개강

- 개강일: 9월 16일(수)
- 시간: 매주 수요일(총12강)  
 <주간반>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수강료: 7만원(교재비 포함)

### 불교대학 6기 2학기 개강

- 개강일: 9월 3일(목)
- 시간: 매주 목요일(총19강)  
 <주간반>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지원자격: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제출서류: 불교대학 입학원서, 사진 1매

### 경전반 개강

- 개강일: 9월 8일(화)
- 시간: 매주 화요일(총12강)  
 <주간반>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과목: 법화경(하권) / 불광출판사
- 수강료: 6만원(교재비 별도)

※ 경전반, 불교입문대학 문의는 교무실  
(02-3672-0036)로 해주세요.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추석합동차례	9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9월 5일	오후 8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9월 12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9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 3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9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9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외로운 이들, 결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모임으로 회원이 되시면 법정스님의 글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알차고 유익한 글이 담긴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